

파니움 - 넘버 식스

다니엘 11장의 예언적 이정표: 소련의 붕괴, 일요일 법령, 그리고 현대 로마의 부상

Jeff Pippenger
2025-03-09

1989년 소련의 붕괴로 다니엘 11장 40절이 성취되었다. 41절은 미국의 일요일 법령이며, 16절도 마찬가지다. 1989년부터 미국의 일요일 법령 때까지 40절은 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 1989년 소련의 붕괴는 다니엘 11장 10절에서도 지적되었는데, 그 구절은 처음에는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에 의해 성취되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북쪽의 왕' 안티오코스 3세 메가스는 기원전 223-187년에 통치했으며, 제3차 시리아 전쟁(기원전 246-241년)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으려 했다. 제4차 시리아 전쟁(기원전 219-217년)에서 그의 원정은 코일레-시리아, 페니키아, 팔레스타인을 탈환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기원전 219년에 안티오코스는 남하하여 피에리아의 셀레우키아, 티레, 프톨레마이스(아코)를 점령하며 해안의 거점들을 회복했다. 기원전 218년에 그는 더 전진해 필라델피아(암만)를 점령하고 이집트의 국경을 향해 압박했으며, 가자까지 잃어버린 셀레우코스 왕조의 영토를 되찾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안티오코스는 기원전 218년에 진군을 멈추고, 획득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결정적 공세를 준비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 필로파토르는 이집트 병력으로 보강하여 그를 맞설 군대를 소집했다. 다니엘서 11장 10절은 안티오코스의 이러한 움직임을 서술하며, 이로써 1989년 소련의 붕괴를 예표하고 40절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분기하여 큰 군대를 모을 것이요, 그 중 하나가 반드시 와서 넘쳐 흐르며 지나갈 것이며, 그 후에 그는 돌아와 분기하여 그의 요새까지 이를 것이다. 다니엘 11:10.

40절에서 북방 왕이 '넘쳐 흐르며 지나간다'고 할 때, 이는 10절의 북방 왕이 '넘쳐 흐르며 통과한다'는 표현과 일치합니다. 두 절 모두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들 사용되었고, 다만 번역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8:8에서도 같습니다.

그가 유다를 지나갈 것이며, 넘쳐 흘러 지나가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의 펼친 날개가 네 땅의 너비를 가득 채우리라, 임마누엘이여. 이사야 8:8.

세 구절 각각은 북방 왕에게 패배하는 남방 왕을 가리킨다. 북방 왕인 안티오쿠스가 남방 왕인 프톨레마이오스를 이긴 것처럼, 산헤립이 남방 왕인 유다를 이긴 것처럼, 그리고 40절의 북방 왕이 1989년에 소련을 휩쓴 것과 같다. 세 구절과 그 구절들의 세 가지 역사적 성취는 1989년을 '끝의 때'로 지목한다. 따라서 10절은 1989년이며, 16절은 미국의 일요일 법령이고, 41절도 마찬가지다.

11절부터 15절은 성경 본문의 한 단락으로, 40절의 숨겨진 역사 속에서 특정한 예언적 이정표들을 식별하게 해 주는 역사적 성취도 담고 있다. 미국의 주일법 이전이 되 1989년

이후의 라피아 전쟁과 그 여파가 11절과 12절에 서술되어 있고, 파니움 전쟁은 13절부터 15절에 서술되어 있다.

일요일 법령은 정한 때이다. 왜냐하면 그때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교황이 세상의 왕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 권세의 부여는 538년의 교황권 즉위와 악티움 해전에서 이교 로마가 권좌에 오른 것으로 예표되었다. 예언적으로 권좌에 오른 이후 이교 로마는 360년 동안 절대적으로 통치했다. 538년에 교황권이 즉위하자, 교황권은 1,260년 동안 절대적으로 통치했다. 일요일 법령 때 그 치명상이 치유되면, 교황권은 상징적 42개월 동안 절대적으로 통치할 것이다.

나는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죽게 된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았는데,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랐다.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고 또 그 짐승도 경배하며 말하였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랴?" 또 그에게 큰 말과 모독을 말하는 입이 주어졌고, 마흔두 달 동안 계속할 권세가 주어졌다. 요한계시록 13:3-5.

27절에는 '이 두 왕 둘 다'라고 되어 있다:

이 두 왕은 마음에 악을 도모하며 한 식탁에서 서로 거짓을 말하겠지만, 그들의 계획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끝은 정해진 때에야 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11:27.

27절의 두 왕은 그 뒤에 악티움 전투를 벌인 앞의 두 절에 나오는 왕들이다.

그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의 왕을 대적하여 그의 권세와 용기를 떨쳐 일으킬 것이요; 남방의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로 전투에 나설 것이나; 그러나 그는 버티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대적하여 계략을 세울 것임이라. 참으로 그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망시키리니, 그의 군대는 쏠려가고 많은 이들이 쓰러져 죽으리라. 다니엘서 11:25, 26.

따라서 27절은 우리가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해해야 할 이례적인 점을 만들어 냅니다. 24절에서 '때'는 악티움 해전에서 시작하여 330년에 정해진 때에 끝나는 360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전쟁에서 남방의 왕은 마르크 안토니우스와 동맹을 맺고 있던 클레오파트라였다. 북방의 왕은 그들 둘을 모두 패배시킬 옥타비아누스였다. 정한 때에(기원전 31년), 이전에 한 상에 함께 앉아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던 그 두 왕은 악티움 전투에서 서로 대면하게 될 것이었다.

식탁에서 마주한 두 왕은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와 마케도니아의 필립의 동맹이 있었던 파니움 전투의 역사(13-15절)와 일치한다. 그 역사적 동맹은 그리스도 시대 파니움의 이름인 가이사라 빌립보에 표현된 상징적 동맹과도 대응한다. 그 동맹은 또한 레이건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이의 동맹을 통해 1989년에 소련이 쏠려 나갈 때 40절에서 나타난다. 두 왕은 기원전 31년 이전에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일요일 법과 일치하므로 그들의 거짓은 16절 이전, 곧 13-15절로 대표되는 역사 동안에 일어난다. 그 역사는 라피아 전투 후 17년,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16절의 성취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137년 전에 있었던 파니움 전투에서 성취되었다.

28절에서 클레오파트라(남방의 왕)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양자에 대한 승리자인 옥타비우스는 “큰 재물을 가지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를 것이요 그가 임의로 행하고 자기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라고 묘사된다. 유라이어 스미스는 이 두 승리를 기원전 31년의 악티움 해전과 서기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으로 확인한다. 그러므로 28절은 360년의 시작점이 되는 악티움 전투에서 시작하여 서기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에 이르는 역사를 지목하고 있다.

그때 그는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대적할 것이요, 그는 큰 일을 행하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다니엘 11:28.

24절의 마지막 어구(“잠시 동안이라도”)부터 이어지는 부분은 기원전 31년에 시작하여, 31절의 마지막 어구(“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에서 끝나는 하나의 역사적 흐름을 나타내며, 그 마지막은 538년에 성취되었다. 그 흐름은 악티움 전투로 시작하는데, 이는 이교 로마가 360년 동안 절대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시점을 표시한다. 그 흐름은 538년에, 교황 로마가 1,260년 동안 절대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 구절들과 그 구절을 성취한 역사 속에서, 330년에 정한 때는 성경 예언의 넷째 왕국으로서의 이교 로마 역사에서의 분기점을 뜻한다. 초기의 360년 절대 지배 기간 이후에는, 538년에 31절에서 말하는 교황권이 왕좌에 오르기 전에 제국이 해체되어 가는 208년의 기간이 뒤따른다. 그 여덟 절의 흐름 가운데, 기원전 31년 악티움 전투 이전에 일어난 역사적 성취를 지목하는 것은 오직 27절뿐이다.

27절은 ‘정한 때’에 앞서 두 왕의 만남을 밝히고, 29절은 ‘정한 때’를 밝힌다. 27절의 ‘정한 때’는 360년 기간의 시작을 가리키고, 29절의 ‘정한 때’는 그 360년 기간의 끝을 가리킨다. 시작과 끝은 각각 ‘정한 때’를 나타낸다.

이교 로마의 세력 강화는 다니엘 8장 9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세 번째 지리적 장애물을 정복했을 때 시작되었다.

그 중의 하나에서 한 작은 뿔이 나와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다니엘서 8:9.

권세의 부여는 악티움 해전에서 시작되었고, 그 뒤이은 남방 왕(이집트)의 복속은 8장 9절에 나온다.

성경 예언의 네 번째 왕국으로서의 이교 로마의 지배는, 교황 로마가 세 번째 지리적 장애물을 극복한 538년에 끝났다. 악티움 전투로부터 538년에 이르는 전체 568년 기간은, 이교 로마가 세 번째 장애물을 정복하고 성경 예언의 네 번째 왕국이 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교황 로마가 세 번째 지리적 장애물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난다.

성경 예언의 네 번째 왕국으로 제시된 역사는 두 시기를 가리키는데, 첫째는 로마가 흥기하는 때이며, 그 다음은 로마의 몰락을 묘사하는 시기이다. 이 첫 번째 흥기의 시작은 성경 예언의 네 번째 왕국으로서 이교 로마가 통치한 전체 기간의 시작이기도 하다. 로마의 첫 번째 흥기의 시기는 정한 때에 시작되어 정한 때에 끝나며, 또한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의 결합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동방 왕국과 서방 왕국으로의 분열로 끝난다. 정한 때로 시작하고 정한 때로 끝나며, 그 시작과 끝은 알렉산더의 왕국이 네 부분으로

나뉜 것을 나타낸다.

27절과 29절의 두 정한 때는 로마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기간을 설명하는 시작과 끝의 이정표를 나타낸다. 다니엘 11장 41절과 16절의 성취로서 미국에서 일요일법이 제정될 때, 현대 로마가 상징적 42개월 동안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시작된다. 27절의 첫째 정한 때는 미국의 일요일법이고, 둘째 정한 때는 지구상의 마지막 국가가 미국의 본을 따라 최후의 일요일법을 시행할 때를 가리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 안식일의 전 세계적 강제 시행을 드러낸다.

그 두 예언적 이정표는 미국의 주일법과 전 세계적 주일법의 강제 시행이며, 그 두 주일법은 27절과 29절의 두 정한 때이다. 27절의 첫 번째 정한 때는 32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제정한 주일법으로도 예표되었고, 538년 오를레앙 공의회에서 제정된 교황권의 주일법은 전 세계적 주일법을 대표한다.

13절부터 15절의 문맥에서 파니움 전투는 16절의 일요일 법령에 앞선 역사이다. 그 역사 속에서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는 두 왕의 만남이 성취된다. 13절부터 15절은 10절부터 16절에 나타난 역사 중 일부이다. 이 구절들은 10절에서 제4차 시리아 전쟁을, 11절에서 라피아 전투를, 12절에서 그 전투의 여파를 가리킨다. 13절부터 15절은 파니움 전투가 성취되고 '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로 표현된 이교 로마가 예언적 서사에 등장하던 기원전 200년의 역사를 나타낸다.

다니엘 11장 40절은 1989년 소련의 붕괴를 가리키며, 16절은 미국의 일요일 법령을 가리킨다. 정한 때 이전에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는 두 왕의 '만남', 곧 악티움 전투는 1989년의 끝의 때 이후에 이어져 미국의 일요일 법령에서 결론나는 40절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27절은 40절의 숨겨진 역사 속의 이정표로서 1989년 이후이지만 일요일 법령 이전에 일어난다. 27절의 '만남'은 일요일 법령 때 로마가 권세를 부여받기 전에 있는 이정표이다. 538년에 교황권이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데 이르는 여러 이정표가 있으며, 이러한 이정표들도 정한 때 이전에 일어난다. 그 예언적 이정표들 가운데 하나는 533년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으로, 30절의 '언약을 버린 자들과 교통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성취하였다.

이교 로마의 역사에서 정해진 때로 이끄는 다른 이정표들은 다음과 같다. 이교 로마가 몰락하면서 동시에 교황권에게 "좌"를 내준 330년. 496년에는 클로비스가 자신의 "권력"을 교황권에 넘겼다. 다니엘 7장의 성취로서 이교 로마는 교황권을 위해 "세 뿔"을 제거했는데, 그 마지막은 538년에 동고트족을 로마 도시에서 축출한 것이었다. 508년에는 이교가 제국의 법정 종교 자리에서 물러나 가톨릭으로 대체되었다. 538은 41절의 일요일 법령을 상징하며, 496은 레이건이 클로비스와 같이 자신의 권력을 로마의 교황에게 바친 1989년을 나타낸다. 330년은 일요일 법령을 가리키는데, 그때 교황권이 권좌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538과 330이 모두 정한 때, 곧 16절과 41절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 준다. 496은 1989가 다니엘 11장 10절과 40절 및 이사야 8장 8절을 성취했음을 나타낸다. 508은 국교가 가톨릭으로 대체되도록 폐지된 때를 가리킨다. 496년의 클로비스로 시작하여 508년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의 법정 국교가 점진적으로 제거되고 대체되는 과정이 보여졌다. 330년에 시작되는 역사에서는 서로마의 점진적 몰락이 첫 네 나팔로 나타나며,

따라서 미국의 일요일법에서 시작되는 점진적 파괴를 가리킨다.

321년에 콘스탄틴의 일요일 법령이 내려진 이후 이교 로마의 점진적 몰락은, 성경 예언에서 여섯째 왕국으로 묘사되는 미국이 일요일 법령에 이르게 될 때 맞이할 몰락을 보여준다. 그때 화잇 자매가 “국가적 배도 뒤에는 국가적 파멸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적인 대로, 네 가지 나팔 재앙이 미국 위에 임한다. 에스겔은 네 겹의 징벌에 대한 증거를 보탠다.

여호와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그 땅이 내게 심히 범과하여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위에 내 손을 펴서 그곳의 양식의 막대기를 꺾고 그 위에 기근을 보내며, 그곳에서 사람과 짐승을 끊으리라. 비록 그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여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만일 내가 해로운 짐승들을 그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짐승들 때문에 지나갈 사람이 없게 하여도, 그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있다 하여도,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은 아들도 딸도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만 건짐을 얻으리니, 그 땅은 황폐하리라. 또 내가 그 땅에 칼을 임하게 하여, 칼아, 그 땅에 두루 행하라 하여 그곳에서 사람과 짐승을 끊게 하여도, 그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있다 하여도,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은 아들도 딸도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만 건짐을 얻으리라. 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고, 피로 그 위에 내 분노를 쏟아 그곳에서 사람과 짐승을 끊게 하여도,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다 하여도,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은 아들도 딸도 건지지 못하고, 다만 자기들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물며 내가 예루살렘에 칼과 기근과 해로운 짐승과 전염병, 곧 네 가지 중한 심판을 보내어 그 가운데서 사람과 짐승을 끊을 때에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러나 보라, 그 가운데에 남겨져서 나오게 될 남은 자, 곧 아들과 딸들이 있으리라. 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올 것이요, 너희는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를 볼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예루살렘 위에 내린 모든 재앙, 곧 내가 그 위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를 볼 때에 그들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요,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 가운데 행한 모든 일을 까닭 없이 한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에스겔 14:12-23.

다음 글에서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